

영암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

업체 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목표
최대 2억원 융자·연3% 이자 지원
30개사 추가 모집 방문·우편 접수
공장등록 완료 제조업체 등 참여

전라남도 영암군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영암군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융자와 이차 차액 보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영암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을 빌릴 수 있고 융자금의 연 3% 이차 차액을 3년 동안 보전받을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5월 기준 영암군 118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30여 개 기업을 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장 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벤처기업, 수출기업, 창업 승인기업 등이며, 올해부터는 고용 창출과 지역순환경제 기여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주요 선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단, 지방세 체납 기업이나 전남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상호영암군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전에는 기업지원과(061-470-6882)로 전화해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명선 영암군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융자와 이차보전 제도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영암군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 더 많은 기업하기 좋은 제도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목포시, 북향상점가 상인회 방문 지역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전라남도 목포시는 지난달 29일 소비침체와 내수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포센터와 협업체 북향상점가 상인회를 방문, 현장의 소리를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목포사랑상품권(모바일)의 가맹점 가입 안내와 현장 접수를 진행했다.

입점비나 광고료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낮아 상인들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전남공공배달앱 '먹개비'의 가입을 안내했다.

무분별한 호객행위 등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유관부서와 협력해 호객행위 단속 추진과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 지도·계도 등을 실시해 쾌적한 관광 상권 환경 조성에 힘을 계획임을 밝혔다.

택배비 부담이 높은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배비 지원정책도 소개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해양 마약범죄 예방 교육·홍보 목포해경, 마약사범 근절 목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1일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해양 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마약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오는 30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앞두고 마약이 미치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영향과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마약의 정의와 종류 △마약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 △마약중독의 위험성 및 사례를 공유하고, 설문지를 작성하며 의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경은 이와 함께 오는 7월31일까지를 마약범죄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삼고 관내 파출소에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불법 마약류 종류, 국내 처벌 법령 등을 포함한 4개 국어(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제작된 안내 책자와 기념품을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 확립이 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며 "직접 소통하는 예방활동으로 국민 일상에 마약류 범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하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무안군, 고위험군 백신 접종 당부

전라남도 무안군은 최근 홍콩, 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일상 속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고 2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원활하지 않아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무안군은 비누를 이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2시간마다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군은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2024-2025학기 백신 접종'을 오는 30일까지 연장에 시행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및 입원환자 등으로 이미 백신을 접종한 경우라도 마지막 접종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는 1회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무안=김행언 기자

전남 10대 브랜드쌀 2년 연속 선정 영암 달마지쌀

전라남도 영암군의 공동브랜드 달마지쌀이 지난달 27일 '2025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3위 우수상에 이름을 올리고 인센티브 15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은 전남 쌀의 고급화를 위해 2003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밥맛, 품종 혼입률, 중금속 및 잔류농약 양 등 8가지 분야로 나뉜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매년 심사·선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우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성과로 달마지쌀은 총 20회 선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영암군은 공동브랜드 달마지쌀을 새정부 품종으로 단일화했고 영암군통합RPC는 생산부터 매입·저장·가공·유통까지 철저하게 품질관리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좋은 밥맛으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지난달 28일 영암군 영암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들이 관내 저소득 위기가구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 영암읍 복지기동대,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봉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달 28일 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읍 통합사례관리사의 요청에 따라 출동한 복지기동대는 영암군자원봉사자, 전남개발공사

으뜸 ESG 봉사단원, 119생활안전순찰대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직원 등 지역사회와 힘을 모은 협업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1~3층까지 쌓인 폐기물 약 8톤을 수거했다.

폐가전은 한 곳으로 모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에 연결하고 고물은 따로 모아

처리한 수익금을 가족에게 전달했다.

배원식 영암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장은 "바쁜 농번기에 위기가정을 위해 봉사활동에 나서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작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음식 에세이 쓰기' 강좌

12일부터 10회 과정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오는 12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음식 에세이 쓰기: 먹고, 기억하고, 쓰다!' 강좌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2025 땅끝순례문학관 상반기 상주작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순례문학관 상주작가인 박인하 시인이 강의를 진행한다.

음식에는 개인의 역사와 감정, 관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구나 맛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추억

하나쯤은 있다. 인간의 생존 행위로써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을 소재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고 쉽게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획한 문학 창작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 내용은 △에세이란 무엇인가 △기억을 장면으로 구성하기 △감각 묘사 훈련 △서사 구조 세우기 △문장 다듬기 등 수필 창작의 핵심을 짚어내는 내실있는 강좌로 구성된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백련재 문학의 집 다목적실

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땅끝순례문학관(061-530-5127)으로 전화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다양한 문학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